

마데라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교회를 사회적, 세속적
인간관계의 연장이나 또
하나의 세속적 모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믿으며 서로에게
상처받은 관계를 끊임없이
용서 안에서 회복시켜
가기를 느낍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을 믿기에
서로 이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은

신 윤 식

흐르는 것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
잠시 머물다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흔적지우며 사라지는 것

바람이 숲에 스며들어와
잠시 머물다가 어느새 털고 일어나
또 다시 다른 바람으로
불리어 가는 것처럼

한 자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

왔다가 가는 것이
하얗게 쌓였다가 햇살 아래 사라지는
겨울 눈발 같으니

흐르는 것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하나 떠나서
이별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5.1

발행호수 제19권 18호

십 자가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죄입니다. 만약 누구든 십자가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가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상적으로 고안해

낸 거짓 십자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결과인데 그 같은 피의 현장에서 자신의 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피 흘림의 현장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시안하는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 의로운 자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기 의에 매어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것은 곧 천국과도 상관이 없고 저주에 속한 존재일 뿐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의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의라고 여겼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 앞에서 쓰레기와 같은 것이 가차 없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앞에 나오게 되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주님의 공로이며 은혜일 뿐,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히 4:12-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는 말씀

주일오전설교
마 21:33-46

악한 농부

처럼 말씀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죄를 낱알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의 현장에서 자기 의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기 의를 도구 삼아 가차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자일뿐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산울타리는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시나무와 같은 식물로 두른 울타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주인은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로 준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主人的 종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에게 바쳐야 할 열매까지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들은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여 버립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만 포도원은 주인의 소유이며 따라서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것으로 돌아가야 할 몫을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받으려고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여 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종교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4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주인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할 열매는 무엇이고, 그들의 무엇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것에 해당되는 행동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세로 받았을 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농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들은 다만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주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인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인의 몫으로 정해진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한 것은 단지 수확한 열매가 아니라 주인에게 감사하는 농부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수확된 모든 열매를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싶었을 뿐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고 자기들 손에 주어진 열매가 주인이 아니었으면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어디까지나 세로 받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농부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일해서 얻은 열매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잊은 채 땀 흘려 일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보기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뭔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아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주인이 모든 것을 완벽히 만들어 둔 포도원을 세로 받아 들어가는 것이지만, 율법의 세계는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산울타리를 치고 좁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 세우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포도원은 자신의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열매 또한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은혜의 세계에서 자기 소유는 없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세로 주지 않았다면 포도원에서 일할 수도 없었음을 생각하기에 포도원에서 일하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 또한 주인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환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내어 놓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천국도 당연히 율법에 대한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었고 따라서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은커녕 저주 받을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자신들을 위한 것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세로 준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차지하는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가를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 온 종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알아주지 않는 적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악함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우리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세로 받아 살아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복으로 주어지든, 아니면 믿음 좋은 신자로 칭송되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로 주어지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이에 묵살해 버리는 섭섭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부하고 밀쳐 내느냐 아니면 결국 복음에 의해 장악되어 하나님이 세로 주신 세상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음의 능력으로 장악하여 자기 수고와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주께 나오게 하십니다. 따라서 감사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자기 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에게 돌아갈 열매까지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은 자신들이 했고 주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자신들이 전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종들에게 열매는 당연히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의 열매를

받기 위해 옵니다. 따라서 악한 농부와 종들의 만남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써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것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자기 것을 위해 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2절)는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건축자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돌로 보여서 버려버린 돌이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전의 머릿돌이 됩니다. 머릿돌을 쓸모없는 돌려 여길 만큼 건축자들에게는 머릿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건축자들은 건축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는 것은 단지 자기들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전문가였을 뿐, 하나님이 보내신 머릿돌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을 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대체시장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머릿돌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깨어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쓸모없는 분으로 보여진 것이고, 십자가 또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포도원에 살면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 또한 하나님이 세 주신 세상 안에서 수고이고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께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오후설교

갈 3:1-3

성령과 행함

(성령15강 4.17일 설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보다 존귀하고 신비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로써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만이 존재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자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두도록 항상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알되 십자가는 구원의 용도뿐만 여길 뿐, 세상을 사는 인생의 의미는 다른데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십자가를 말하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닌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되 인생은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후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발생한지 수십 년이 지났다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십자가 사건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다고 해도 오늘 내게 일어난 생생한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신비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눈앞에 밝히 보이는 현재의 사건으로 말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처럼 어느 시간에 고정되어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과거를 회상하듯 회상하면서 묵상하는 차원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독립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

들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유대교 전통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야를 떠난 후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믿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안되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에 율법주의자의 말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더 잘 믿는다는 것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뜻이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행함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의로운 인간으로 격상되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효능은 인간을 경건한 자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선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신앙이 좋다' 라는 평가를 불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나태하다' 는 질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를 격상시키는 데는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격상시키는데 마음을 둔다면 율법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착각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러울 때 이것은 십자가만 주장하고 행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말이 사람의 귀에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모인다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의 의미를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것에 둔다면 결국 교회의 교

회됨을 이루기 위해 율법적 행함과 실천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 행함과 실천에 성실하면 교회의 문제는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됨은 인간의 입맛에 맞는 교회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악함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없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신자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맞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실천일 뿐이며 그것이 곧 율법적 실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위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 실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과 실천을 믿음의 증거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행함을 믿음의 증거물로 여기면 결국 행함이 기준이 되어 믿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행함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갈 6:7-10절을 보면 사도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선을 행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선을 행하는 것을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의한 실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는 결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실천하고 착한 사람 되어서 신자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신자로서 자연히 선과 착함이 있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행함은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로 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행함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육체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에 붙들려 있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해체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의 의와 가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격상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면 그 행함이 어떤 선의 모습을 입고 있다고 해도 육체로 행하는 자기를 위한 악에 해당될 뿐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행함의 목적이나 의미를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나니 죄인의 자리에서 이웃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행함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신자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경험 안에서 신자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행함으로부터, 자기 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있는 신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낙심하는 것이 없이 선을 행하며 믿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2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웬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말을 누군가에 대한 시기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출 3:14절에서도 하나님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으로 말하고, 신 4:24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멸하는 불' 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질투는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질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질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질투의 대상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소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만이 자리하고 계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고 나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는 오로지 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는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질투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금식을 한 것도 자신을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신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여전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는 자기 형편을 이유로 건축에 불만을 가졌고,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다가 망하기 전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향을 떠날 때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한 것입니까?

수요일설교
속 8:1-13

기이한 일

(9강 4.13일 설교)

만약 유다를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겪게 하신 일들이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변화에 있지 않았습다. 고통과 고생으로 인해 인간이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과 고생을 통해 인간을 변화 시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유다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 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제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손에 지팡이를 잡은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많다는 것은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없이 평안이 지속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고 말합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자손의 번창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손의 번창은 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계속되게 하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복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모든 백성이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복은 인간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주지해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소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몫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접한다고 해

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 안에서 영원한 멸망에 간혀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 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생각과 지식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이 못되고 오히려 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기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투로 인해 소멸 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용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만을 높일 뿐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장

교 독 : 80(고후4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569장

성 경 : 마 21:33-46

말 씬 : 악한 농부(13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5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4장

기 도 : 신미정 집사

찬 송 : 288장

성 경 : 고후 3:12-18

말 씬 : 성령과 자유(성령 1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24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12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5월 2일 오후 3시에 울산교회당에서 동부노회가 열립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조순자 집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④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은총이며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는 신자라면 자기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연히 타인과 경쟁하며 해치는 것도 없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상태의 나라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 11:6-8)는 말로 표현을 했다.

이리나 표범이나 사자가 자기 이익과 자기 배를 위한 길로 나아간다면 어린양이나 어린 염소는 무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린양이나 어린 염소가 이리, 표범, 사자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이리, 표범, 사자가 자기 가치와 이익을 위한 길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천국의 정신이고, 이 정신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과 자기 가치를 위한 길로 가지 않으셨다. 자기 가치를 위한 길로 가셨다면 십자가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가치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대한 순종으로 스스로 허물어지는 길을 가신 것이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고 이 지식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자랑할 필요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소리치고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해 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그러한 교회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봄에 따뜻한 햇살 기운을 받아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가 싹을 내고 그 싹이 조금씩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교회를 세상과는 다른 나라로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게 한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가 허물어진 자들의 모임으로 존재해야 한다. 자기 가치가 허물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어야 비로소 인생의 전투가 사라지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의 티를 보며 비판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그것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스림 받는 천국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됨은 인간의 인격이나 윤리와 도덕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로 나타난다. 신자가 용서 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자각하고 자기 입장을 알 때 가능한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인간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공격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잊지 않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 활동하는 증거이고, 이 지식은 반드시 교회의 교회 됨이라는 증거물을 토해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